

교 회 설 립 70 주 년 기 념
이 웃 과 함 께 하 는 음 악 회

ELIJAH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2023. 9. 8. 금. 오후 7시

총현교회 본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

총현교회 연합찬양대 |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멘델스존
엘 리 아

총현교회연합찬양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인사말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음악회 오라토리오 <엘리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충현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충현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위해 열린 음악회로 기획되었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는 멘델스존 평생의 최대걸작일 뿐 아니라 ‘엘리아’라는 역사적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연주와 노래로 수고해주시는 강남심포니와 출연진들, 그리고 충현교회 연합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이 밤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그리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3. 9. 8

충현교회 한규삼 담임목사



환영사

예수님의 몸된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올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념음악회는 충현교회와 강남구와 연합하여 함께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고 한층 기대가 큼니다. 충현교회로서는 7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기쁨과 설레이는 심정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 하였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할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통해 성경 속의 엘리아를 만나길 희망하며 엘리아 처럼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엘리아’ 찬양과 연주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영민 지휘자님과 솔리스트,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충현교회 연합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힘써 지원하여 주신 강남구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충현교회의 7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웃분들과 충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밤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출연진들과 청중들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3. 9. 8

충현교회 70주년 기념준비위원장 이상석 장로

축사

안녕하십니까.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만들고 있는 강남구청장입니다.

먼저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충현교회 한규삼 담임목사님, 그리고 음악회를 이끌어주실 박영민 지휘자님과 네 분의 솔리스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및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충현교회 연합찬양대가 함께 만드는 첫 민관 합동 무대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민관 합동 공연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공연곡은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멘델스존의 ‘엘리아’입니다. 관객 여러분께 멋진 무대를 선사하고자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편안히 즐겨주시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예술인 음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8

강남구청장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연주 곡목

제 1 부

도입 서창 (베이스)
서곡 (오케스트라)

고통의 신음과 기도, 그리고 약속

- No.1 주여, 도우소서 (합창)
- No.2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소프라노 이중창과 합창)
- No.3 너희 마음을 찢으라 (테너 레치타티브)
- No.4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테너 아리아)
- No.5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도다 (합창)

다시 살아나는 기적

- No.6 엘리아! 여기서 떠나라 (알토 레치타티브)
- No.7-1 주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이중 사중창)
- No.7-2 이제 시내도 말랐으니 (알토 레치타티브)
- No.8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소프라노와 베이스 레치타티브 및 아리아)
- No.9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창)

불의 기적

- No.10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베이스와 테너 레치타티브, 합창)
- No.11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의 선지자들 합창)
- No.12-1 더 크게 불러보라 (베이스 레치타티브)
- No.12-2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의 선지자들 합창)
- No.13-1 더 크게 불러보라 (베이스 레치타티브)
- No.13-2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하소서 (바알의 선지자들 합창)
- No.14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이스 아리아)
- No.15 네 집을 주께 맡기라 (4중창)
- No.16-1 당신의 종들을 영으로 만드시사 (베이스 레치타티브)
- No.16-2 불꽃이 내려온다 (합창, 베이스 레치타티브)
- No.17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한가 (베이스 아리아)
- No.18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갔나니 (알토 아리아)

비의 기적

- No.19-1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소서 (테너 레치타티브)
- No.19-2 주여, 주께서 적들을 물리치셨으니 (베이스 레치타티브, 합창, 소년)
- No.20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창)

제 2 부

권면과 위로

- No.21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소프라노 아리아)
- No.22 두려워하지 말라 (합창)

위협과 엘리아의 피신

- No.23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중에서 세우셨건만 (베이스와 알토 레치타티브, 합창)
- No.24 그에게 저주있으라 (합창)
- No.25 너 하나님의 사람아 (테너 레치타티브)
- No.26 족하나이다 (베이스 아리아)
- No.27 보라 그가 누워 자더니 (테너 레치타티브)
- No.28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사들 3중창)
- No.29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보라 (합창)
- No.30 엘리아여 일어나라 (알토와 베이스 레치타티브)
- No.31 잠잠히 주를 기다리라 (알토 아리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엘리아의 승천

- No.33 주여, 어둠이 다가오니 (베이스와 소프라노 레치타티브)
- No.34 주께서 지나가시니 (합창)
- No.37 산들이 흔들리고 (베이스 아리아)
- No.38 선지자 엘리아는 (합창)

구원과 예고

- No.39 그 때에 의인들은 (테너 아리아)
- No.40 그러함으로 그가 보내졌도다 (소프라노 레치타티브)
- No.41-1 그러나 한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 (합창)
- No.41-2 목이 마른 자들은 모두 오시오 (4중창)
- No.42 그리하면 네 빛이 (합창)

* 모든 솔로 레치타티브와 아리아, 솔리콰이어의 중창곡들은 독일어로, 합창은 한국어로 연주합니다 *

작곡가 멘델스존 (1809~1847)은 우리에게 ‘한여름 밤의 꿈’, 가곡 ‘노래의 날개 위에’ 교향곡 ‘이탈리아’, ‘마단조 바이올린협주곡’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이다. 북부 독일 함부르크의 명망 있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성장하였는데 할아버지는 독일 계몽시대의 철학자인 모세 멘델스존이었으며 아버지인 아브라함 멘델스존은 은행장이었다. 유대인의 자부심이 있었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는 개신교로 개종하였으며 멘델스존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아마추어 음악가이자 영문학, 불문학, 이탈리아 문학에 능통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역시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라틴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였으며 시와 그림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당대 최고의 문호였던 괴테가 어린 멘델스존의 천재성을 보고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다방면에 재주를 보였다.

또한 그는 바흐의 <마태수난곡> 등 숨겨진 보석과 같은 작품들을 발굴하여 연주한 지휘자이자 작곡가, 오르가니스트이자 교육자였다. <마태수난곡>을 발굴하여 초연하면서 바흐 음악의 부흥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바흐의 음악과 신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오라토리오 작곡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흐의 주 무대였던 라이프치히로 옮겨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지휘자로 크게 활약하였으며 무엇보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의 숨겨진 명곡들을 소개하였다. 피아노와 오르간에 뛰어난 연주자였지만 기교적이거나 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낭만시대의 우아함과 품위를 지닌 작곡가였으나 바흐의 대위법적 양식과 고전의 정통성 등이 그의 작품에 함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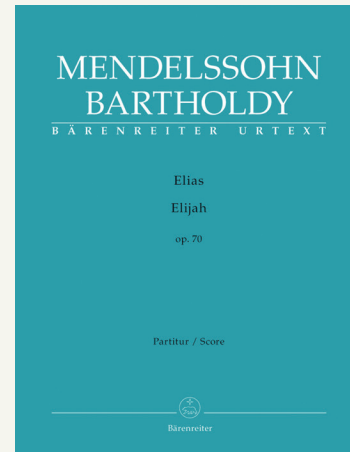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학교의 이름이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예술대학이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수였고 다방면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교회음악 역사에 있어서도 깊은 신앙심으로 인해 바흐, 헨델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시편 합창곡들을 작곡하였다.

그의 첫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이어 작곡된 오라토리오 <엘리아> 역시 대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세 번째 오라토리오 <그리스도>를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채 무리한 작곡과 가족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한 충격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 대전의 발발과 함께 독일에서 한동안 그의 음악과 업적들은 부정되기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으나 멘델스존의 곡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펠릭스 멘델스존

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 ~ 1847)



오라토리오 <엘리아>

Oratorio <Elijah> Op.70

멘델스존의 <엘리아>는 헨델의 오라토리오와 바흐의 수난곡을 합쳐 놓은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첫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 성공을 거두자 영국 버밍엄 음악축제의 위촉을 받아 구약성경의 선지자, 엘리아의 이야기를 주제로 1846년에 작곡되었다. 중세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의 전통적인 교회음악 양식뿐 아니라 고전주의, 그리고 회화적 표현방법을 담은 낭만주의의 양식까지의 다양성을 한 작품에 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초연 무대에서 8곡의 앵콜곡을 더 연주했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곡은 바로크 시대의 헨델의 <메시아>, 고전주의 시대의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3대 오라토리오로 불리운다.

줄거리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의 위협을 막기 위해 시돈 땅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들이 바알을 숭상하고 타락이 극에 다다르자 이에 선지자 엘리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며 여호와가 진정한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정한 신인지 시험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전 곡은 44곡 (연주 악보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 (1-20), 2부 (21-44)로 구성된다.

제1부는 ‘여러 해 동안 가뭄이 지속되리라’고 예언하는 엘리아의 서창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오라토리오가 서곡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멘델스존은 엘리아의 예언을 먼저 선포하고 이후에 서곡으로 들어가는 극적인 구조를 택했다. 또한 이 서곡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등장하는 큰 소리의 합창은 아름답고 명료한 멜로디가 아닌 반음계적 하행으로 이루어진 선율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런 탄식과 절규를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갈멜산의 불의 대결, 그리고 오랜 가뭄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부에서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하며 끝내 엘리아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승리의 대합창으로 막을 내린다.

사용된 가사는 성경에서 가져왔으며 멘델스존 특유의 섬세하고 철저함으로 인한 가사와 음악의 완벽한 일치, 유려한 선율과 아름다운 화성, 자연 현상들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표제음악적 오케스트레이션, 작곡가의 깊은 신앙심,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천사들의 중창, 깊은 위로를 전하는 독창곡, 그리고 감격스러운 대규모 합창곡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멘델스존 필생의 역작이다. (연주시간 약 120분)

지휘 박영민

Conductor
Youngmin Park

지휘자 박영민은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유럽 음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 입학하여 전설적인 지휘자 미하엘 길렌을 사사하며 5년 과정의 지휘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잘츠부르크 국제 모차르트 재단으로부터 파움가르트너 메달을 수상하였다. 이후 이탈리아 시에나 키지아나 아카데미 지휘 과정에 선발되어 정명훈을 사사하기도 하였다.

32세에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창원시향 등 국내 유수의 시립교향악단을 객원지휘 하였으며 서울 클래식 플레이어즈, 원주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와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유럽 데뷔 연주를 시작으로 독일 브레머하펜 시립 교향악단, 체코 브르노 및 북체코 필하모닉, 스페인 반다 바르셀로나 및 마요르카 심포니, 리투아니아 국립교향악단, 아르메니아 필하모닉, 폴란드 오폴레, 제스조브 필하모닉, 일본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 등 유럽과 아시아에서 심포니 및 오페라 지휘자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홀, 쾰른 필하모니홀, 프랑스 메츠 아스날홀, 비엔나 뮤직페어라인, 프라하 스메타나홀 등에서 지휘하였으며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음악제인 La Folle Journee Festival 등의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히 후기 낭만 교향곡의 스페셜리스트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으로 Sony Classic에서 여러 장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부르크너, 바그너, 시벨리우스 등의 전곡 연주 시리즈 등의 기념비적인 연주 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오페라에서도 라보엠을 비롯한 주요 낭만 레퍼토리와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등을 유럽과 한국에서 선보였다.

일본 아스펜 재팬 매니지먼트 소속 아티스트로 유럽은 물론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미래로 떠오르는 아시아 무대에서 활발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현, 임마누엘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지휘자



Bass-Baritone, Samuel Yoon
베이스 바리톤 | 엘리야 역
사무엘 윤

서울대학교,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 졸업

2012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개막작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역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로린 마젤,
크리스티안 틸레만, 피에르 불레즈 등
거장 지휘자들과 협연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퍼,
드레스덴 젬퍼 오퍼, 밀라노 스칼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등 공연

2014년 제 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 수상

제 8회 대원 음악 연주자상

2016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2018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이인선상 수상

독일어권 최고 명예인 궁정가수 칭호 수여

현,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Tenor, Yoonjong Kook
테너 | 오바다/아합 왕 역
국윤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오페라과,
리트 및 오라토리오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우승, 프랑스 마르세이유 콩쿠르 대상,
스페인 빌바오 콩쿠르 3위

KBS 콩쿠르 우승, 중앙 콩쿠르 3위, 부산 고태국 콩쿠르 대상

스위스 생 모리츠 오페라 페스티벌,독일 레겐스부르크 시립
극장, 하노버 시립 극장 주역 가수

오스트리아 쿠프슈타인 오페레타 페스티벌,
비엔나 폭소오퍼, 대한민국 국립 오페라단 주역 가수

미국 뉴욕 카네기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독일 게반트하우스, 오스트리아 빈 콘체르트 하우스,
빈 뮤직페어라인,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산토리홀 등에서초청 연주

현, 국립 오페라단 주역 가수



Soprano, Sharon Kim
소프라노 | 미망인/천사/소프라노 솔로 역
김샤론

성신여대 수석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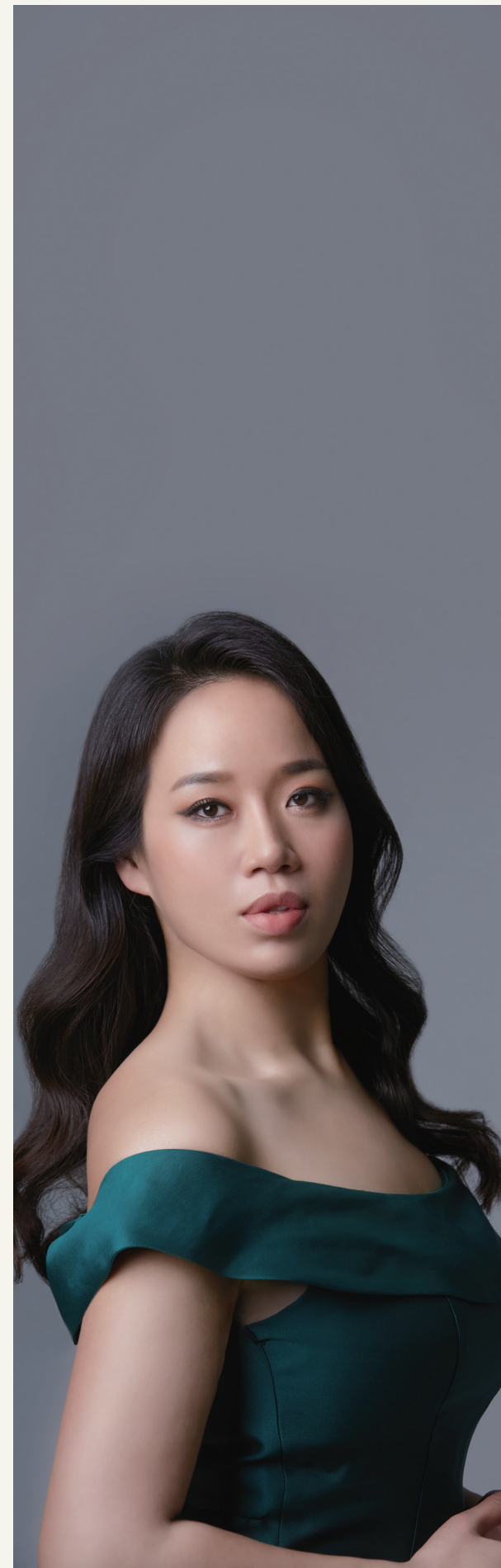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성악과 및
최고과정 오페라과, 리트과 졸업

이탈리아 씨에나 끼지아나 음악원 수료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광주오페라단 등
주역 출연

부천시향, 경기도립오케스트라, 원주시향, 과천시향,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등 협연

현, 성신여대 및 성신여대 대학원 출강 및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 겸임교수



Mezzo Soprano, Eunkyong Lim
메조 소프라노 | 이세벨/천사 역
임은경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뮌헨 국립음대 오페라과, 가곡 오라토리오과 석사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 2 위, Hilde Zadek 3 위, 국제 성악
콩쿠르 (IVC) 바그너 특별상 수상

스위스 루체른 시립 오페라극장, 독일 아헨 시립극장 전속
주역 가수.

베를린 Staatsoper Unter den Linden, 하노버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Prinzregententheater, 프라이부르크 시립극장,
Eutin Festival,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

현, 연세대, 숙명여대, 세종대 출강 및 전문 연주자로 활동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Gangnam Symphony Orchestra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97년에 창단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최초의 기초 자치단체 소속 교향악단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수준 높은 연주력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6월부터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원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강남구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강남문화재단 소속 예술단체로 새롭게 출발하여 활동하고 있다.

교향악축제에 1998년부터 초청연주를 한 강남심포니는 98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주최 제야음악회, 청소년음악회,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한국음악협회 한민족창작음악회, KBS FM콘서트 신흥음악회, 통영국제음악제, 롯데콘서트홀 개관기념 가족음악회 등에서 좋은 기량을 선보였다.

세계로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강남심포니는 2003년 강남구 자매도시인 미국 리버사이드시 초청으로 한인 미 이민 100주년을 기념, 축하하기 위한 공연을 로스앤젤레스와 리버사이드에서 성황리에 마쳤으며 2013년 시카고 문화회관 초청 연주를 성공리에 끝내어 강남심포니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음반제작에도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는 강남심포니는 1998-2000년 교향악축제에서 연주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4·5번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의 연주실황 CD출판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교향악단으로는 처음으로 베토벤의 9개 교향곡 전곡을 출판하였다. 2009년도부터 브람스 교향곡 전 곡 녹음을 시작하여 2011년 전 집 앨범을 출판하는 쾌거를 이루며 대한민국 음악사에 큰 획을 남겼다.

신선한 사운드와 열정적인 연주를 자랑하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서현석 초대 예술감독 이후 성기선, 여자경 예술감독의 발자취로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활동과 진취적인 공연기획을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단원명단

() 객원연주단원 * 수석단원 ** 부수석단원 ◎총무

부 지 휘	이탐구									
악 장	윤염광									
제 1 바 이 올 린	(윤염광)	*이수아	◎최정완	전하영	김기환	박수빈	이선정	김한나	이정민	
	(남지원)	(강지혜)	(박박사)	(유혜인)	(김세은)					
제 2 바 이 올 린	*장혜진	조은서	박선신	정은아	이규진	김현경	윤종인	황의창		
	(송승민)	(김미가)	(이세림)	(이수현)						
비 올 라	* (양혜순)	최선희	구나운	김정운	김태희	신경화	(최혜미)	(황승묵)	(김성윤)	(이선경)
첼 로	* (장우리)	(최예지)	박영미	한채연	이서린	(서정민)	(주고은)	(강승현)		
콘 트 라 베 이 스	*정찬학	서옥이	정재희	이동은	송선진	(정하나)				
플 루 트	* (이지연)	박현정								
오 보 에	*이형규	최수연								
클 라 리 넷	*김주현	박미하								
바 순	*김현준	(임주형)								
호 른	*소진선	**김형주	이지석	조규성						
트 럼 펫	*조창환	김달식								
트 럼 본	*김승현	박성호	이효성							
튜 바	*이은관									
팀 파 니	*박보형									
오 르 간	(김신영)									

오케스트라 사무국

단 무 장	정승원	홍 보	길영혜	악 기	고동식
기 획	심소명	악 보	조준호	행 정	안민주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Choonghyun Church Choir

지휘 박영민
오르간 김신영 피아노 이태리

Soprano 강길레 강진희 공연옥 권성순 김미리 김수연 김수영 김승희 김연희 김영희 김옥자
김주은 김지선 김지희 김태금 김현수 김현정 김혜영 김효경 김희연 김희영 김희종
남준자 라병순 문현주 민순주 박규리 박소연 박소윤 박예진 박재순 박형숙 방효정
배윤숙 서미미 서혜덕 송순이 신란희 신명희 신향옥 엄선자 엄유선 오은경 윤 희
윤현하 이경자 이경희 이상희 이신남 이태리 임윤숙 장수정 장순양 장윤주 전덕란
전민지 전성실 전아현 정경원 정명주 정정임 조옥례 주다인 진가은 진현종 차지영
차혜숙 채명혜 채은실 최근준 최금란 최선미 최숙진 최윤희 최혜진 편예림 한선경
한 진 한홍래 현옥련 홍성미 황순란

Tenor 공병식 김 건 김경한 김광선 김기욱 김기웅 김종상 김훈식 남기범 도재덕 박종호
변인식 서민수 서정현 성종규 손기영 안재선 유종훈 윤세현 조성수 조천영 지세현
최규옥 최은열 최찬휘 황석환

Alto 강경순 강에스더 구영희 구자은 권형숙 김경선 김민지 김선영 김성옥 김순임 김영순
김영희 김예숙 김은주 김종녀 김지현 김창옥 김한나 김혜숙 김효정 김희영 노희영
마연희 박경연 박남이 박병희 박영순 방미숙 백선옥 백소연 손경희 신은옥 신은자
심재선 안설희 오세은 오지현 오현숙 유경희 유미향 유외숙 이명순 이상민 이선향
이성숙 이연순 이연실 이연화 이용주 이은순 이정민 이정애 이진하 이희연 임순록
장선복 장순태 장지혜 장혜지 전동여 정명림 조미현 조선희 지정민 진가영 차봉순
천세은 최난희 최정은 최정현 최지은 최천숙 추수미 하진희 함희정

Bass 강성희 고혁준 김광일 김덕호 김배규 김상열 김영휘 김주헌 박 범 박선용 박진완
박판수 백현철 신용봉 오정근 이정인 이홍우 임우도 전인걸 정문종 주영선 주재윤
차신득 허만선 홍순혁 홍승우



소년역 Knabe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
예원 음악콩쿨 초등 5학년부 1위
난파 음악콩쿠르 초등 6학년부 2위
수리 음악콩쿠르 중등부 3위
현, 예원학교 1학년

김예림

세 천사역 Three Angels



김희연



장수정



장지혜

이중 4중창 Double Quartet



Soprano 김희연 장수정 김지희 김희영
Alto 백선옥 박병희 장지혜 조설희 조미현

Tenor 유종훈 지세현 김건 윤세현
Bass 이정인 강성희 전인걸 정문중 박범

솔리콰이어 SoliChoir



Soprano 김연희 김지희 김희연 김희영 방효정 안설희 윤현하 장수정 장윤주 전민지 채은실 한선경 함희정 홍성미
Alto 김민지 김선영 김성옥 박병희 백선옥 백소연 손경희 이진하 장지혜 장혜지 조미현 조설희 지정민 최지은 추수미
Tenor 공병식 김건 김하민 남기범 유종훈 윤세현 조천영 지세현
Bass 강성희 김상열 박범 이정인 전인걸 정문중 주재윤 홍승우

총현교회 연합찬양대 단체사진



제 1 부

엘 리 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서 곡 오케스트라

1. 주여, 도우소서 (합창)

사 람 들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려 하시나이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나이다
시온에 계신 주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허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 하나 없도다

2.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소프라노 이중창과 합창)

사 람 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중 창 시온이 손을 뻗으나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도다

3. 너희 마음을 찢으라 (테너 레치타티브)

오 바 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엘리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달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4.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테너 아리아)

오 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보좌로 나아갈까

5.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도다 (합창)

사 람 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비웃으셨도다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도다
우리를 다 진멸할 때까지 그 저주가 우리를 따라다니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 엘리아! 여기서 떠나라 (알토 레치타티브)

천 사 엘리아!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니라

7-1. 주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이중 사중창)

천 사 주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7-2. 이제 시내도 말랐으니 (알토 레치타티브)

천 사 이제 시내도 말랐으니 엘리아, 일어나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 곳 미망인에게 명령하여
당신을 돌보게 하였으니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8.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레치타티브 및 아리아)

미 망 인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도와주소서 내 아들이 병이 중하여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없나이다
나는 밤새도록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나의 고통을 보소서 불쌍한 자들의 도움이시여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그의 호흡이 더 이상 없나이다

엘 리 아 내게 당신 아들을 주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간청함을 들으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돌아보사
주의 여종의 아들을 도와주소서 주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 망 인 죽은 자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의 호흡이 더 이상 없나이다

엘 리 아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 망 인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감사합니까?

엘 리 아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미 망 인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살아있나이다

엘 리 아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미 망 인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나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엘 리 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9.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창)

주를 경외하고 그의 길로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10.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베이스와 테너 레치타티브, 합창)

엘 리 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내가 섰노라 이제 삼 년이 다했으니 아합 왕에게 보이리라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라

아 합 왕 너는 엘리아가 아니냐, 엘리아 맞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지?

사 람 들 너 엘리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 리 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당신이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르니 좋소!
그럼 지금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도 모으시오 거기서 과연 참 하나님인지 봅시다

사 람 들 과연 참 하나님인지 봅시다

엘 리 아 그럼 바알의 선지자들과 송아지 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하나를 골라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테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사 람 들 종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엘 리 아 너희 신을 먼저 불러보라 너희들의 수가 더 많으니! 하지만 나는 홀로 남은 주의 선지자라
너희들의 산과 들의 신들을 불러보라

11.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의 선지자들 합창)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바친 제물을 좀 보소서 강한 신이여 불을 보내서 적들을 멸하소서

12-1. 더 크게 불러보라 (베이스 레치타티브)

엘 리 아 그가 신이라니 더 크게 불러보라 그가 묵상하고 있는지, 몰두하고 있는지, 들에 잠깐 나가 있는지
좀 깨워보라 크게 불러보라, 더 크게!

12-2.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의 선지자들 합창)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이여 들으소서, 깨소서 왜 주무십니까?

13-1. 더 크게 불러보라 (베이스 레치타티브)

엘 리 아 더 크게 불러보라 안 듣나보다 너희 규례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 보던지
너희들의 제단에서 날뛰어보라, 불러보라 아무런 음성도, 대답도, 기척도 없도다

13-2.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하소서 (바알의 선지자들 합창)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바알이여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보소서, 바알이여!

엘 리 아 모든 백성들이여 이리로 오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14. 아브라함의 하나님 (베이스 아리아)

엘 리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15. 네 집을 주께 맡기라 (4중창)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혜는 하늘만큼 크고 넓으며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6-1. 당신의 종들을 영으로 만드시사 (베이스 레치타티브)

엘 리 아 당신의 종들을 영으로 만드시며 천사로 불꽃으로 삼으시사 그들을 보내소서

16-2. 불꽃이 내려온다 (합창, 베이스 레치타티브)

사 람 들 불꽃이 내려온다! 불이다! 불꽃이 번제물을 삼켰도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엘 리 아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모두 죽이라

사 람 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17. 여호와와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한가 (베이스 아리아)

엘 리 아 여호와와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한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한가
주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8.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갔나니 (알토 아리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듣지 아니하는도다 화가 있으리로다

19-1.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소서 (테너 레치타티브)

오 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19-2. 주여, 주께서 적들을 물리치셨으니 (베이스 레치타티브, 합창, 소년)

엘 리 아 주여, 주께서 적들을 물리치셨으니 이제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시사 당신의 종을 도와주소서

사 람 들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시사 당신의 종을 도와주소서

엘 리 아 소년아 올라가서 바다쪽을 바라보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소 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엘 리 아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날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종을 도와주소서

사 람 들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시사 당신의 종을 도와주소서

사 람 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종을 도우소서

엘 리 아 다시 가서 바다쪽을 보아라

소 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땅은 무쇠 같습니다

엘 리 아 비가 올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바다 쪽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소 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 리 아 당신의 종의 탄원을 들어주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침묵하지 마소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소서

소 년 저기 바다쪽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 람 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자비로우시도다

엘 리 아 주께 감사하라 그는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20.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창)

하나님께 감사하라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도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제 2 부

21.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소프라노 아리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 그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께서 폭군들 아래 있는 그의 거룩하신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위로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죽음 앞에 떠는 자여, 네가 누구냐? 너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네가 누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22. 두려워하지 말라 (합창)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23.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중에서 세우셨건만 (베이스와 알토 레치타티브, 합창)

엘 리 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중에서 왕으로 세우셨건만 아합 왕 당신은 이전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여로보암의 죄로도 부족하여 바알과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의인을 죽이고 남의 것을 탈취
하였도다 그가 이스라엘을 물속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때리시며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하여 넘기시리라

이 세 벨 저가 또 다시 이 백성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모두 다 들었지?

사 람 들 우리가 다 들었나이다

이 세 벨 그가 또 이스라엘 왕에 대해 예언하는 것도?

사 람 들 우리가 다 들었나이다

이 세 벨 왜 그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게 하는가?
엘리아의 힘이 왕보다 더 세진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의 생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임 당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내게 벌이 내리리라

사 람 들 그는 죽어 마땅하도다

이 세 벨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도다

사 람 들 그는 죽어 마땅하도다

이 세 벨 그가 그들을 칼로 다 죽였도다

사 람 들 그가 그들을 다 죽였도다

이 세 벨 그는 하늘을 닫히게 한 자다

사 람 들 그는 하늘을 닫히게 한 자다

이 세 벨 그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가서 엘리아를 잡으라 그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죽이리라

24. 그에게 저주있으라 (합창)

사 람 들 그에게 저주있으라 그는 죽어 마땅하도다 어찌 그가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것인가? 어찌 그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가 이스라엘을 또다시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그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러니 가서 그를 잡아 죽여라

25. 너 하나님의 사람아 (테너 레치타티브)

오 바 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내 충고 좀 들어주시오 이세벨이 말하기를 엘리아는 죽어 마땅하다 하나이다
당신을 잡으려고 올무를 쳤나이다 그러니 어서 떠나 광야로 가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어서 떠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엘 리 아 그들은 회개하려 하지 않는도다 소년이여 너는 여기 머무르라 주가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나는 광야로 떠나가리라

26. 족하나이다 (베이스 아리아)

엘 리 아 주여 족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나이다 살아온 날들이 보람도 없이 헛되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열의를 가졌으나 주의 자녀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이제 홀로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여 족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27. 보라 그가 누워 자더니 (테너 레치타티브)

오 바 다 보라 그가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둘러 어루만지도다

28.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사들 3중창)

천 사 들 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네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네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 아니하는도다

29.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보라 (합창)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고통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그가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리라

30. 엘리아여 일어나라 (알토와 베이스 레치타티브)

천 사 엘리아여 일어나라 네 갈 길이 멀도다 호렘산에 이를 때까지 주야로 40일을 가야 하는도다

엘 리 아 주여,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내 힘을 낭비하고 허비하나이다 아! 저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시사
저 산을 녹여버리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 주 앞에 서 있는 적들이 떨며 두렵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완악한 저들을 그냥 두시나이까? 내 영혼이 죽어가나이다

31. 잠잠히 주를 기다리라 (알토 아리아)

천 사 잠잠히 주를 기다리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바라라 노여워하거나 분노치 말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라

33. 주여, 어둠이 다가오니 (베이스와 소프라노 레치타티브)

엘 리 아 주여, 어둠이 다가오니 멀리 계시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천 사 너는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주의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네 얼굴을 가리우라 그가 가까이 오시도다

34. 주께서 지나가시니 (합창)

주께서 지나가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폭풍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주께서 지나가시니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요동쳤으나 주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도다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으나 주님은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며
그 속에 주님이 임하셨도다

37. 산들이 흔들리고 (베이스 아리아)

엘 리 아 정녕 그러하도다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주의 자비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38. 선지자 엘리야는 (합창)

선지자 엘리야는 불처럼 일어섰으며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도다
그는 교만한 왕을 멸망시켰으며 시내산에서 장래에 닥칠 징계와 호렙산에서 그 복수에 대하여 들었도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하늘로 올리려 하실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졌도다

39. 그 때에 의인들은 (테너 아리아)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감쌀 것이요 슬픔과 탄식은 그들 앞에서 달아나리로다

40. 그러함으로 그가 보내졌도다 (소프라노 레치타티브)

 그러함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졌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함이니
이는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1-1. 그러나 한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 (합창)

 그러나 한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 해 돋는 곳에서 왔도다 그는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권력자들을 능가하도다 그는 주의 종이며, 주께서 택하신 자이며, 주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다 주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하나니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41-2. 목이 마른 자들은 모두 오시오 (4중창)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목이 마른 자들이 그에게로 와서 귀를 기울이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나아오라, 주께로

42. 그리하면 네 빛이 (합창)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신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로다
주, 우리의 통치자시여!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주께 하늘에서 감사하나이다, 아멘

Staff List

총현교회

준비 TFT

팀	장	허만선					
지	도	박요셉					
총	괄	김상열					
총괄 Assist.		김영아					
진 행 팀	김상열	황석환	강성희	박영민	김신영	김영아	
홍 보 팀	최민석	박진완	최은열	홍승우	조천영	홍종헌	유철
지 원 팀	전성욱	홍탁성	함충기	권영일	강은진	권재복	김다엘
	김동욱	김서은	김성하	김영림	류명희	문한숙	민아민
	박정숙	박채경	박혜경	오선희	유은찬	윤숙희	윤지현
	이서진	이순기	이영아	이은경	이주아	이희주	임경호
	장인실	정승현	진혜인	최시온	최영주	최현희	한선형
	한지원	황 자					
회 계 팀	장기락	원지현					

분야별 담당

자	막	김은진	편예림		
영	상	최예진	구예은		
번	역	김영아			
디 자 인	박채린	허은혜	황하진		
영상제작	김유림				
사진촬영	고영학	서정현			
음 영 실	노인기	김경훈	이창기	박요한	이수인
봉 사	채명혜	정명주	이선향	신란희	엄유선 김희종
화 동	이서윤	위온유	윤서원	정은서	

강남구·강남문화재단

총	괄	김미옥		
지	도	김부재	정순돈	
진	행	주혜영	이진옥	임영배